

탱자나무 울타리가 없는 어릴적 꿈속의 과수원!

자연과 사람의 정이 어우러지는  
새마을연수원 동산에 나눔과수원을 만듭니다.  
하늘, 땅,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가꿔 만든  
이 과수원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.

하나, 과일이 잘 익으면 누구나 따 드십시오.  
둘,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섯 개를 더 따가십시오.

나눔은 나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.

아사달나눔과수원 주인백

생명·평화·공경의 공동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는  
「아사달나눔과수원」 함께 만듭시다!



- 🍏 일 자 : 2018년 4월 중
- 🍏 장 소 : 새마을연수원 원내 야산 넉넉한 경사지
- 🍏 식재수종 : 사과, 배, 복숭아, 자두, 살구, 대추, 뽕나무 등
- 🍏 참여대상 : 수도권 지역공동체내의 일반시민, 학생,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모두 가능합니다.
- 🍏 참여방법 : 과수 심는 날과 동호회 모임에 함께 참여합니다.
- 🍏 후원안내 : 나눔과수원 과수는 여러분의 정성을 먹고 자랍니다. 과수 및 유기질 퇴비 1구좌 5,000원 이상

※ 나눔과수원계좌 (신한은행 110-488-692809 김수진)

아사달나눔과수원운동추진본부 (☎ 031-780-7832)